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 현황과 과제

선임연구위원 박창균

임팩트투자는 재무적 수익과 함께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로, 목적성·이중가치 추구·성과의 측정 및 공개 등을 핵심 구성요소로 한다.

글로벌 임팩트투자 시장은 투자자산 운용 규모가 2014년 약 600억 달러에서 2024년 4,180억 달러로 연평균 약 20%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투자 대상도 금융서비스 중심에서 에너지·의료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 역시 2004년 7개 펀드, 운용자산 1천억 원에서 2024년 301개 펀드, 운용자산 6조 6,500억 원으로 성장하여 벤처펀드 시장의 의미 있는 축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임팩트펀드는 일반 펀드보다 기준수익률을 1%p 이상 낮게 설정하지만 해산 펀드의 실현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어, 임팩트투자가 “수익을 포기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대수익 구조가 다른 투자”임을 보여준다.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이 생태계 구축 단계를 넘어 스케일업이 가능한 새로운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시장 수익률 수준의 성과 입증, 사회적 성과 측정·보고 표준화, 임팩트 스타트업 발굴·육성, LP 역할 확대, 정책자금의 효과적인 활용, 세제 지원 및 공익법인 규제 정비, 임팩트 기업의 법적 정의 마련 등의 과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내 상장기업 유상증자 시장반응과 자본적지출 변화

선임연구원 홍지연

유상증자는 대표적인 자기자본 조달 방식이지만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를 희석시키는 특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시장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설비 확충이나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유상증자 방식에 따라 주가반응이 차별화되는데, 제3자배정은 긍정적, 주주배정과 일반공모는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제3자배정은 공시 이후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인 반면, 주주배정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유상증자 이후 자본적지출(CAPEX) 규모의 변화에서도 제3자배정에서는 공시 당시 긍정적인 주가반응을 보인 기업이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한 반면, 주주배정과 일반공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제3자배정 방식에서는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후 실제 투자확대와 비교적 일치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투자계획과 성장 가능성을 비교적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

선임연구원 신경희

2019년 DLF 사태 이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2024년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통해 불완전판매 관행이 다시 확인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녹취·숙려제도 및 핵심 위험 정보 고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법원 역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단할 때 투자자의 연령,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와 실제 설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향후 도입될 표준서식이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실질적인 내부통제와 불완전판매를 초래하는 영업관행 개선이 필요하다.